

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과 정책 기여도 등을 평가해 우수 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220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 사항 전반과 특수시책, 우수 사례, 정책기여도 등을 평가했다.

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그동안 토지분할을 하지 못해 지분 형태로 소유한 공유토지의 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협업 추진, 사업실적, 전략적 사업 참여기여도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해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산림조합 산림경영  
지도사업 우수조합 선정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로부터 2021년도 산림경영 지도사업 우수조합으로 선정됐다.

부안군산림조합은 2016년도 산림토목 시공사업 우수상, 2017년 경영평가우수상, 조합원 가입 우수상, 2018년도에는 최초로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토목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2019년도 상반기 금융업 적령가 은상, 하반기에는 동상을 수상하고, 2021년도에는 상반기 금융업적령가 은상을 받았으며 이번엔 산림경영지도 우수조합으로 선정되어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오세준 조합장은 "적극적인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통하여 부안군 관내 모든 임업인과 조합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내실있는 조합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존중받는 사회복지 종사자

정읍시, 도넨 최초 상해보험 지원 등 지속적 처우개선 '눈길'

정읍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라북도 최초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2만 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1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7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676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천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2019년부터 총 2억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매년 2회 1인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중한 업무, 낮은 임금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의 후생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보수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들이 사비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1인당 5만6,000원의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국내·외 연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체육대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설종사자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일제 단속 행정처분 조치

정읍시, 명칭 사용 위반 등 30건 적발

정읍시가 지난달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와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된 30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내용은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 위반 2건, 중개사무소 간판 대표자 성명 미 표기 2건, 폐업 신고 미이행 3건,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할 수 없는 자 1건 등 8건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폐업 신고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은 5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성명 표기 누락 등 주 간판 표기 방법을 위반한 17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간판 교체 등 시정명령 내렸다.

시는 이들 중개사무소가 자진 철거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으로 해당 간판을 철거할 계획이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 등 유사 간판을 사용한 미등록 중개사무소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로 인한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의뢰 시 거래당사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를 법령이 정한 보수 상한 요율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매매·교환이 ▲5천만원 미만 6/1,000(25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6/1,000(80만원 한도),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 5/1,000(20만원 한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30만원 한도)이며,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은 ▲매매·교환 5/1,000 ▲임대차 4/1,000 등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적극 추진

23일 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21개소 중 3개소(출포 대성농장 보안우현농장·월광농장)를 권익현 부안군수가 방문해 깨끗한 축산농장 현판 교체와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1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22개소가 신규로 추가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부안군내에서는 총 91개소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었다.(17년 8개소, 18년 5개소, 19년 14개소, 20년 42개소, 21년 22개소)

국정100대 운영과제인 2025년 '깨끗한 축산농장' 1만호 조성에 맞춰 부안군도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0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깨끗한 축산농장(CLF, Clean Livestock Farm) 지정 제도는 가축의 사양관리, 물환경오염 예방, 주변 경관과의 조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악취발생이 적은 친환경축사를 만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한 제도이다.

인증기간은 총 5년으로 이 기간 동안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대상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으로 축산농가는 가축의 적정사육밀도 유지, 가축분뇨의 신속 처리 및 악취저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로 이어져 농장주변 지역주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이 기대된다. 또한 부안군은 향후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시설 추진에 있어 깨끗한 축산농장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모양성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울력해 마을가꾸기에 나섰다

## '주민 손으로 직접 도시재생'

고창 모양성마을 꾸미기 프로젝트 진행

고창군 모양성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울력해 마을가꾸기에 나섰다.

23일 고창군 도시재생센터에 따르면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마을 소득 창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모양성마을 마을 꾸미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프로젝트에는 모양성 주변 4개의 마을(천북, 동촌, 모양, 동산)이 모두 참여했다.

천북마을은 80m의 마을담장을 미장과 페인트 작업을 진행해 마을 외관을 산뜻하게 바꿨다.

동촌마을도 낡은 외벽을 주민들이 울력해 페인트를 칠하고, 그림을 그려넣으며 미관 정비에 힘썼다. 모양마을도 100m의 마을 벽면과 담장에 주민이 직접 페인트칠 활동을 진행

했다.

동산마을은 현재 마을 주민들이 모여 고창읍 읍내리 63-3 골목의 환경 개선을 위한 외벽 미장을 진행하고 있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관계자는 "주민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사업 참여자 간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도시재생 협업체계 강화 및 마을 공동체 형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모양성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는 올 한 해 모양성마을에 약 15개의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고창서 축구협회 지도자 강습회 등 성황리 마쳐

고창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C급 지도자 강습회가 2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성공리에 끝났다.

현직 프로축구 선수 박주호(수원FC), 이승기·한교원(전북현대 모터스) 등 120명이 수강생으로 참가했고 정해성 감독을 비롯하여 이임생, 서동원 등 전 국가대표 출신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고창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지도자 강습회는 축구 감독 자격을 부여하는 수준 높은 훈련 프로그램이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창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쾌적한 숙박시설은 전문행사를 치르는데 손색이 없었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천장어 등 다양한 먹거리에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0월에도 68명



이 참가한 골든에이지 프로그램(12세~15세 유소년 육성)을 6일간 고창에서 개최했다.

강습회 및 골든에이지 참가자들은 고창에서 장기 합숙을 하며 식당과 마트 등을 이용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대한축구협회와 협력해 각종 지도자 강습회를 고창에서 개최해 스포츠타운 고창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